

## 긍정적 환상의 한일비교 :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에 의한 설명

이누미야 요시유키  
서정대학

김윤주  
서울사이버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갖는 자기인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인 문화적 자기관 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전통적으로는 정확한 자기인식이 정신건강의 필수 조건인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긍정적인 환상(혹은 자기고양 편파)이 정상적인 인간 사고의 특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자기고양은 서양 문화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발견 중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비교 문화 연구를 통해 일본에서는 그러한 자기고양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자기인식의 문화적 차이는 문화에 따라 상이한 자기관 즉 구미 문화의 상호 독립적 자기관과 동양 문화의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 이론적 관점으로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관한 긍정적인 환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기존 이론의 가정들에 대해 검토한 후, 문화적 자기관의 대체 모델로서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와 일본인의 대상성 자기 이론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문화적 자기관,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긍정적 환상, 자기고양 편파

최근 자기인식과 정신적 건강의 관련성을 다루는 연구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전에 일본주의 심리학자들이 주로 연구하던 이 주제는 인지심리학과 문화심리학 그리고 긍정심리학이 교차하는 흥미로운 영역으로서 일부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확한” 자기인식이 정신적 건강이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종래의 견해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왜곡된” 자기인식이 정신적 건강이나 적응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그러한 관련성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미문화에 한정된 현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거기서는 문화심리학을 주도해온 개인주의 집단주의

또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이 현상 해석의 틀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긍정적 환상에 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를 조망함으로써 그 틀의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이론에 의한 자기인식의 문화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긍정적 환상의 기능과 기제

Taylor와 Brown(1988)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시키는 경향(자기 고양 편향, self-enhancing biases)을 지각내용 자체에 착안하여 긍정적 환상(positive illusions)이라고 명명하였

다. 그리고 이것을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자기관(unrealistically positive views of the self), 과장된 개인적 통제감의 지각(exaggerated perceptions of personal control),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이라는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타자와 비교하여 좋은 특성과 능력 그리고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장밋빛의 장래가 기다리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긍정적으로 “왜곡된” 자기인식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자기에 관한 긍정적 환상이 정신적 건강과 현실적응에 순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자기인식은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aumeister, 1991; Taylor & Brown, 1988). 자기에 관한 긍정적 환상은 개인내적 과정과 대인관계 과정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적응에 연결된다고 생각된다(遠藤, 1995). 즉, 긍정적 자기개념, 통제감에 대한 확신 및 장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성공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보다 많은 노력과 인내심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긍정적 자기개념을 가진 사람은 타자에 대해 긍정적 관심을 가지게 되고 친사회적 행동을 함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지지도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기관련 긍정적 환상은 인지적 편향의 산물로 보인다(Greenwald, 1980, Greenwald & Pratkanis 1984). 인간의 정보처리능의 직전의 경험이나 정서 상태, 기존 지식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에 의해 쉽게 왜곡되는 경향이 있으며, 현실의 충실한 복사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적극적인 재구성이라는 사실들이 밝혀져 왔다(Nisbett & Ross, 1980). 만약 그렇다면 인지활동의 하나의 산물인 자기개념만이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충실하게 복사한 것일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遠藤, 1995). 적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선택적 주의, 해석, 기억을 통해 자기를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현실을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 문화적 자기관과 긍정적 환상

그런데 이상과 같은 구미사회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현상이 일본을 위시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때로는 그 반대의 자기비판적 인식을 한다는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하였다(Markus & Kitayama, 1991a). 이러한 문화차는 자기고양이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에 의거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며 문화에 따라 그러한 자기고양 욕구를 산출하는 자기와 산출하지 않는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遠藤, 1995).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환상을 둘러싼 자기인식의 문화차를 해석하는 틀로서 개인주의 집단주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 상호독립적 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이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Heine & Lehman, 1997; Markus & Kitayama, 1991a, 1991b; 遠藤 1995; 北山, 1998).

####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자기고양

“상호독립적 자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구미문화에 있어서는, 자기 안에 자랑할 만한 속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자기정의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 그러한 바람직한 속성을 발견하여 그것들을 실현하도록 동기화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구미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 수준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발달시켰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바람직한 속성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튜닝되어 있을 것이다. 즉, 특히 그러한 정보에 주의의 초점을 맞춰, 그것들에 대해 보다 깊이 또는 넓게 숙고하는 심리적 습관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택적 튜닝의 결과로서 귀인적 추론에 있어서 자기고양 편파가 초래된다고 생각된다. 즉, 자신에게 바람직한 사건(예를 들어 성공)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거기서 일관되게 바람직한 속성(예를 들어 높은 능력)을 직접 추측하는 데 반해,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예를 들어 실패)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것과 모순되는 바람직한 속성(예를 들어 높은 능력)을 유지하려고 하여, 그 모순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적 요인을 추측하여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a; 北山, 1998).”

####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자기비판

“한편 일본을 비롯한 동양문화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그 일부로 간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

를 찾아내는 것이 자기정의 그 자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안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어 가도록 동기화되어 있을 것이다. 자기 내부 속성의 평가를 유지하고나 높이는 일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따라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별로 동기화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 기대, 명백한 규범, 또는 가치관 등을 간파하여, 그것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결점, 즉 자신이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르는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을 수정하여 이 관계 안에 자신을 끼워 넣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동양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튜닝되어 있을 것이다. 즉, 특히 그러한 정보에 주의의 초점을 맞춰, 그것들에 대해 보다 깊이 또는 넓게 숙고하는 심리적 습관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택적 튜닝의 결과로서 귀인적 추론에 있어서 자기비판 편파가 초래된다고 생각된다. 즉,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예를 들어 실패)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거기서 일관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예를 들어 낮은 능력)을 직접 추측하는 데 반해, 자신에게 바람직한 일(예를 들어 성공)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것과 모순되는 바람직한 속성(예를 들어 낮은 능력)이 추측되어, 그 모순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적 요인을 추측하여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a; 北山, 1998)."

비교문화심리학자는 물론 문화비평가들은 모두 한국사회를 강한 집단주의 사회라고 규정한다(한규석, 2002). 또한 한국문화는 일본문화나 중국문화와 함께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로 분류된다(Leung & Kim, 1997; Levine, Bresnahan, Park, Lapinski, Wittenbaum, Shearman, Lee, Chung, & Ohashi, 2003; Markus & Kitayama, 1991a; 高田, 2004). 따라서 위의 이론적 예측이 맞다면 한국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자기고양적 지각은 없거나 미약할 것이고 때로는 자기비판적 인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연구를 통해 한국인은 일본인과는 달리, 긍정적 환상(자기고양적 인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자기특성, 장래에 대한 지각, 통제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에 관한 구미와 일본 그리

고 한국 간의 문화차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한국인과 일본인이 갖는 자기인식의 차이

### 자기특성

Markus와 Kitayama(1991b)는 미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에게 능력(지적능력, 기억력, 운동능력), 상호독립적 성향(독립성, 자기의견 고수성향), 상호협조적 성향(동정심, 따뜻한 마음씨)을 제시하고 이러한 각각의 측면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 중 자기보다 우수한 학생의 비율"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만약 자기보다 우수한 학생의 비율이 70%라고 한다면 자신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 것이고, 30%라고 한다면 자신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각 응답자 개개인에게 있어서, 특히 우수한 능력이나 특성의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각자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추정치의 집단 평균이 50%보다 낮아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능력이나 특성에 관한 긍정적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배경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 무선적으로 선발하여 여러 특성에서 자기의 상대적 위치를 추정하도록 했을 때,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추정치는 50%이기 때문이다. 결과에서는 미국의 대학생들은 자신에 관한 세 가지 특성 모두에서 긍정적 환상을 보인 데 비해(각각 41.5%, 33.5%, 28.0%), 일본의 대학생들은 능력(53.5%)과 상호독립적 성향(50.0%)에서는 그러한 긍정적 환상을 보이지 않았고 상호협조적 성향(44.5%)에서만 미약한 긍정적 환상을 보였다.

또한 Heine와 Lehman(1997)은 일본과 캐나다 대학생들(유럽계 캐나다인과 아시아계 캐나다인)에게 상호독립적 성향(배려적이다, 재미있다, 독립적이다, 자신감이 있다, 지적이다)과 상호협조적 성향(협조적이다, 헌신적이다, 배려심이 깊다, 열심히 노력한다, 믿음직하다)을 각각 제시하고 이러한 각각의 특성에서 "같은 연령층의 동성들 중 자기보다 나은 사람의 비율"을 추정해 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유럽계 캐나다인은 강한 긍정적 환상을 보인 데 비해(각각 27.5%와 23.7%), 일본 대학생들은 상호독립적 성향(47.3%)에서는 그러한 긍정적 환상을 보이지 않았고 상호협조적 성향(43.9%)에서만 미약한 긍정적 환상을 보였다. 아시아계 캐나다인은 그 중간 수준의 긍정적 환상

을 보였다(각각 36.3%와 27.4%).

일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영역의 능력과 특성에 관한 사회적 비교 양상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평가영역에 따라 평균이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伊藤, 1999). 즉 경제력, 용모, 운동능력, 사교성과 같은 영역에서는 자기를 평균적 타자에 비해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적 능력, 생활방식, 취미특기 영역에서는 평균적인 판단 경향을 보였으나, 상냥함이나 성실함과 같은 영역에서는 자기를 평균적 타자에 비해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냥함이나 성실함에 관해서 자기를 평균적 타자에 비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또한 일본대학생들의 긍정적 환상 현상을 알아본 다른 연구에서도 자기 영역에 관해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外山, 櫻井, 2001).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특징(용모가 좋다, 매력적이다, 스타일이 좋다, 건강하게 보인다, 패션감각이 좋다), 경험으로의 개방성(두뇌회전이 빠르다, 어떤 재능이 있다, 개성적이다, 흥미가 넓다, 지적이다), 사교성(사교적이다, 동성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이성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명랑하다, 적극적이다)에 있어서는 부정적 환상(자기비하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조화성(배려심이 있다, 친절하다, 관대하다, 너글너글하다, 순진하다) 및 성실성(성실하다, 책임감이 있다, 자신에게 엄격하다, 고지식하다, 꼼꼼하다) 측면에서는 긍정적 환상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미국 대학생이나 캐나다 대학생의 경우는 자기의 모든 영역에서 강한 긍정적 환상을 품고 있는 데 비해, 일본 대학생의 경우는 그와 같은 강한 긍정적 환상은 품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대학생들이나 캐나다 대학생들이 능력과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요한 상호독립적 성향뿐만 아니라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요한 상호협조적 성향에 있어도 강한 자기 고양적 지각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대학생들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요한 상호협조적 성향(조화성, 성실성 등)에 관해서 미약한 긍정적 환상을 갖고 있지만 신체적 특징, 능력(지적능력, 운동능력 등), 및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요한 상호독립적 성향(경험으로의 개방성, 사교성 등)에 있어서는 긍정적 환상이 없으며 평균적인 판단경향을 보이거나 오히려 부정적 환상(자기비하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조공호와 명정완(2001)은 한국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또는 자기고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능력(지적능력, 기억력, 운동능력), 개인주의사회에서 중시하는 개체성 특성(독립성, 자립성, 자기주장성), 집단주의사회에서 중시하는 배려성 특성(동정심, 따뜻한 마음씨, 타인사정 이해성)을 각각 제시하고 이러한 각각의 측면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 중 몇%가 나 자신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국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환상을 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능력(39.5%)이나 개체성 특성(36.0%)의 자기고양적 지각 경향보다 배려성 특성(29.7%)의 자기고양적 지각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공호, 명정완, 2001). 다른 연구에서도 한국대학생들은 능력(36.7%)이나 개체성 특성(38.3%)의 자기고양적 지각 경향보다 배려성 특성(29.8%)의 자기고양적 지각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공호, 2002). 또한 한국고등학생들도 능력(40.9%)과 개체성 특성(39.4%) 및 배려성 특성(36.8%)의 자기고양적 지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공호, 명정완, 2001).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고등학생들은 능력(40.5%)보다 개체성 특성(36.8%)이나 배려성 특성(34.6%)의 자기고양적 지각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공호, 2002).

또한 한국대학생들의 긍정적 환상 현상을 알아본 다른 연구(정옥, 한규석, 2005)에서도 자기 영역에 관해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체력조건에 있어서는 부정적 환상(자기비하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용모, 창의력에 있어서는 평균적인 판단경향을 보였으나, 독립심, 유머감각, 이해심, 어울림, 협동심 측면에서는 긍정적 환상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자기고양적 지각을 가지고 있으며, 능력과 상호독립적 성향 및 상호협조적 성향의 모든 면에서 강한 긍정적 환상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대학생이나 캐나다 대학생이 보인 특징과 유사한 것이다. 미국 내지 캐나다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이 보인 긍정적 환상의 양상은 상호독립적 상호협조적 자기관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었지만 한국 대학생이 보인 긍정적 환상의 양상은 상호독립적 상호

협조적 자기관 이론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는 긍정적 환상을 설명하는 상호독립적 상호협조적 자기관 이론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이며 앞에서 언급한 전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특성에 관한 자기고양적-자기비하적 인지의 이상과 같은 문화차는 자기고양적-자기개선적 동기를 반영하는 행동 차원의 문화차로 귀결된다. 예를 들면 Heine, Kitayama, Lehman, Takata, Ide, Leung 와 Matsumoto (2001)는 캐나다 대학생들과 일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과제(창의성검사)를 수행하도록 한 뒤 피드백을 성공 또는 실패로 조작하여 제공하였다. 그 후 난이도가 달라진 실험과제에 매달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캐나다 학생들은 실험과제에 성공한 조건에서의 과제 수행시간이 실패한 조건에서 보다 길었으나, 일본 학생들은 이와 반대로 실패한 조건에서의 과제 수행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캐나다 대학생들의 경우에 자신이 성공한 과제에서 자존감의 부양을 느끼고 이 자존감을 확인하고 향유하려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반면, 일본 학생들의 경우는 자신이 실패한 과제에서 자괴심을 느끼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시키려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일본 학생이 보인 자기개선적 행위 양상이 아니라, 캐나다 학생들과 같은 자기고양적 행위 양상을 보였다. 즉, 성공 피드백을 받은 집단이 실패 피드백을 받은 집단보다 과제에 더 오래 매달리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정옥, 한규석, 2005). 한국 대학생들도 자신이 성공한 과제에서 자존감의 부양을 느끼고 이 자존감을 확인하고 향유하려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자기고양적 행동은 개인주의문화로 분류되는 캐나다 대학생들의 것과 유사한 패턴이다.

#### 장래에 대한 전망

긍정적 환상(positive illusions)은 자신의 장래에 관한 지각 영역에서는 비현실적 낙관성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나타난다. 비현실적 낙관성이란 사람들이 비슷한 조건의 타인들에 비해서 긍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더 많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더 적게 일어날 것

이라고 믿는 신념을 말한다(Weinstein, 1980). 이러한 경향성은 긍정적인 사건에서 보다 부정적인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크게 나타나며(Weinstein, 1984), 서구인들에게는 나이나 사회, 경제적 계급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Weinstein, 1987). 이것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과 타인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평가하게 하여 그 차이를 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Heine 와 Lehman(1995)은 서구인으로서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하다고 알려진 캐나다 대학생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다고 인정되는 일본 대학생 간의 비현실적 낙관성 수준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 대학생에서는 비현실적 낙관성이 발견된 반면에, 일본 대학생에서는 비현실적 비관성(unrealistic pessimism)이 발견되었다. 즉 캐나다 대학생들은 예를 들어 “앞으로 언젠가 폐암에 걸릴 것이다”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에 비해 자신에게는 더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일본 대학생들은 남들에 비해 자신에게 그런 부정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더 크게 추정하였다.

이누미야,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및 한성열(1999)은 한국 대학생들은 과연 캐나다 대학생처럼 비현실적 낙관성을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일본 대학생처럼 비현실적 비관성을 나타낼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정적 사건의 유형별로 비현실적 낙관성을 측정했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개인지향적 사건에서도 관계지향적인 사건에서도 비현실적 낙관성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은 캐나다 대학생처럼 비슷한 조건의 타인들에 비해서 부정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더 적게 일어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 유형별로는 특히 개인지향적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이 관계지향적인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성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캐나다 대학생들이 보인 패턴과 유사한 것이다(Heine & Lehman, 1995). 이러한 결과도 역시 긍정적 환상을 설명하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이론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이다.

#### 통제감

Weinstein(1980)은 비현실적 낙관성의 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사건에 대한 통제감을 중요시하여, 통제감이 커질수록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성이 커지는 것으

로 보고했다. 이것은 부정적 사건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에게는 적게 일어날 것이라는 비현실적 낙관성을 합리화하는 근거로서, “나는 그러한 사건의 발생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통제감이 높을수록 비현실적 낙관성을 갖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부정적 사건들에 대한 통제감에 관해서, 캐나다 대학생들이 개인지향적 사건과 관계지향적 사건간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일본 대학생들은 개인지향적 사건보다 관계지향적 사건을 더 통제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Heine & Lehman, 1995), 한국대학생들은 이번에는 일본 대학생들처럼 개인지향적 사건보다 관계지향적 사건을 더 통제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누미야 등, 1999). 이러한 결과는 Heine 와 Lehman (1995)의 논의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 대학생들처럼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한국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통제감 수준은 일본 대학생은 물론 캐나다 대학생보다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이누미야 등, 1999).

긍정적 환상의 하위범주인 과장된 개인적 통제감의 지각과 관련하여 통제소재의 발달에 관한 문화 차이를 시사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Rotter(1966)는 ‘행동은 목표에 대한 가치와 기대의 함수’라는 가정 하에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의 내외통제소재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라는 개념을 제창했다. 내외통제소재란 개인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지양식으로서 행동의 결과는 개인 행동에 수반되고 따라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인 내적 통제 경향과, 행동의 결과는 개인 행동에 수반되지 않으며, 따라서 통제할 수 없다는 신념인 외적 통제 경향을 양극으로 하는 일차원적 변인이다. 각 개인은 개인차에 따라 이러한 일차원적 연속체상 어딘가에 위치하며 내적 통제경향이 강한 사람(내적 통제자, Internals)과 외적 통제경향이 강한 사람(외적 통제자, Externals)으로 분류된다. 내적 통제자는 일의 성패는 개인의 능력(ability), 노력(effort), 기술(skill) 같은 내적 요인에 따라 통제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외적 통제자는 일의 성패는 운이나 우연, 힘이 있는 타인(powerful others) 같은 외적 요인에 따라 통제된다고 생각하거나 상황 요인이 너무 복잡해서 예측불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원상의 발달에 관한 연구

를 보면, 미국에서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걸쳐 내적통제 경향이 점차 증가하는 데 비해(Lackman, 1986; Lao, 1976; Milgram, 1971; Penk, 1969), 일본에서는 중 고 대학생의 순으로 내적통제 경향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즉 외적통제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鎌原, 樋口, 1987).

한편 한국에서는 초, 중, 고등학생의 순으로 내적통제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훈구, 1980). 즉 일본 학생들은 성장해감에 따라 일의 성패는 운이나 우연, 힘이 있는 타인(powerful others) 같은 외적 요인에 따라 통제된다고 생각하거나 상황 요인이 너무 복잡해서 예측불가능하다는 신념이 강해지는 데 반해, 한국학생들은 성장해감에 따라 일의 성패는 개인의 능력(ability), 노력(effort), 기술(skill) 같은 내적 요인에 따라 통제된다는 신념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제한된 자료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의 통제감 발달 방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성공과 실패의 귀인

일상생활에서의 목표지향적 활동의 필연적 귀결인 성공과 실패의 귀인에 관한 미국의 연구를 개관하면 자신의 성공을 자기의 내적 요인, 특히 능력에 귀속시키는 강력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北山, 1998). 이러한 귀인의 결과 자신의 능력을 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은 자기고양적 편파라고 부른다. 한편 자신의 실패를 운이나 과제의 난이도 등의 외적 요인으로 돌림으로써 자기인지에 대한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자기방어적 편파라고 부른다. 성공과 실패의 귀인에 있어 이러한 편파를 통해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는 자기평가의 고양을 도모하고, 실패했을 때는 자기평가의 방어를 도모한다고 가정되어 있다. 미국의 연구를 개관하면 실패했을 때의 자기방어적 경향은 약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성공했을 때의 자기고양적 경향은 아주 강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北山, 1998).

그러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자기고양적-자기방어적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성공을 운이나 과제의 난이도에 귀속시키고 실패는 능력이나 노력 부족에 귀인시키는 자기비판적 경향이 현저하며

편의적 실험과제를 사용한 연구의 대부분에서 능력은 성공보다도 실패의 원인으로 지각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의 자기비판적 경향은 공개적인 상황에서 특히 강해지지만, 익명성이 보장된 경우에서도 역시 자기비판적 경향은 나타난다(北山, 1998). 따라서 일본인의 자기비판적 경향은 겸양적 자기제시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자각을 반영하는 인지과정임을 의미한다.

한편 한국인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귀인 양상에 대해 알아본 김혜숙(1995)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은 개인 과제 수행상황에서 실패에 대한 능력 귀인보다 성공에 대한 능력 귀인이 더 강한 자기고양적 귀인을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자기고양적 내적 귀인은 익명의 귀인 상황에서 서보다 공개적 상황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즉, 피험자들은 자신과 같은 과제를 수행한 타인들이 듣는 상황에서도 “겸양지덕” 등의 사회규범에 의해 이러한 경향을 통제하고 절제하기보다는 더욱 자기를 긍정적으로(자기고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인이 보이는 자기특성, 장래에 대한 지각, 통제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 등에서의 긍정적 환상은 한국문화를 일본문화와 같은 집단주의문화이며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라고 가정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한국을 집단주의문화로 분류한 전체나 문화적 자기관과 긍정적 환상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가정 중 적어도 하나는 성립하기 어려운 가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모순을 풀기 위해 다음으로 한국이 집단주의문화라는 전제와 문화적 자기관과 긍정적 환상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가정을 검토하기로 한다.

#### 기존이론의 가정들에 대한 검토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은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해방이후에 도입된 구미의 개인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교육제도, 생활양식, 정치체제 속에서의 생활이 지속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해방 이후에 가치관의 변화에 관심을 둔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한국사회가 전통의 집단주의적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태도를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임

희섭, 1994; 차재호, 정지원 1993).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를 분석한 나은영과 차재호(1999)의 연구에서 1970년대와 1990년대 간에 한국인의 가치관은 개인주의 쪽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대에 있어서 “충효사상이 중요치 않다(9.0%→25.3%)”거나 “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더 중요하다(25.7%→58.7%)”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현대 한국사회의 집합주의를 다룬 차재호와 정지원(1993)의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2.5%가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서울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20대 집단에서는 반수에 못 미치는 사람들(남 46.3%; 여 44.7%)만이 집합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를 밝히기 위해 한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를 재는 각본척도를 이용하여 행해진 한 조사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자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응답자의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규석, 신수진 1999).

아직까지 중고등학생의 과반수는 집단주의 성향자로 구분되지만(최태진, 2004, 2006), 대학생들은 고등학생들보다 더 개인주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조공호, 2002; 조공호, 명정완, 2001) 위의 긍정적 환상에 관한 연구의 주된 대상인 한국 대학생들을 집단주의자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개인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인다. 만약 현대 한국 대학생들이 집단주의자가 아니라 개인주의자라고 봐야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한국인이 보이는 자기특성, 장래에 대한 지각, 통제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 등에서의 긍정적 환상은 개인주의화된 한국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집단주의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일본 대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Matsumoto, Kudoh, 및 Takeuchi(1996)의 연구는 직업을 가진 평균 40세의 일본인은 일본의 대학생들보다 집단주의적이며 과거의 일본은 집단주의적이었을 지도 모르나 현재는 의심스럽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타카노와 오사카(高野, 櫻坂 1997)가 개인주의/집단주의에 관해 통제된 조건 하에서 일본인과 미국인을 비교한 12건의 실증적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일본인은 집단주의

적이며 미국인은 개인주의적이다”라고 하는 통설을 지지하는 연구는 2건 뿐이고, 일본인과 미국인 간에 명확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는 7건, 통설과는 반대로 일본인은 미국인보다 개인주의적이라고 하는 연구가 3건이었다 따라서 이들 실증적 연구는 전체적으로 “일본인은 집단주의적이며 미국인은 개인주의적이다”라고 하는 통설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Oyserman, Coon 및 Kimmelmeier(2002)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각각에 대해 북미인(캐나다인과 미국인)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비교한 50건의 연구를 모아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주의 차원에 관해서는 통설대로 북미인은 일본인이나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보다 개인주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주의 차원에 관해서는, 타카노와 오사카(高野, 櫻坂, 1997)의 개관과 마찬가지로, 통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인은 집단주의에 있어 북미인과 차이가 없었으며(연구수 7건) 일본인의 경우는 북미인보다 오히려 집단주의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연구수 17건).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적어도 “현대 한국 대학생들은 개인주의적이지만 현대 일본 대학생들은 집단주의적이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북미인은 한국인이나 일본인보다 개인주의적인 측면을 강하게 가지고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북미인도 한국인이나 일본인만큼 집단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미인(캐나다인과 미국인)은 개인주의적이고 동아시아인(한국인이나 일본인)은 집단주의적이라는 전제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에 관해 그 이론적 전제에 의문이 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에 대해서도 이론적 전제에 의문이 제기되어 있다. 대표적인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들(Gudykunst, 1996; Leung & Kim, 1997; Singelis, 1994)을 사용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Markus와 Kitayama(1991a)의 이론이 예언하는 서양인(미국인과 캐나다인 및 호주인)과 동양인(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및 대만인) 간의 자기관 차이는 약하고 비일관적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Levine, et al., 2003). 즉, 서양인은 아시아인보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강하다는 가정과 서양인은 상호협조적 자기관보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하다는 가정은 미약하게나마 지지되었지만, 아시아인은 서양인보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강하다는 가정과 아시아인은 상호독립적 자기관보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다는 가정은 지지되지 않았다. Levine 등(2003)에 의하면 Markus와 Kitayama(1991a)의 문화적 자기관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결과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 자체(그중에서도 특히 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일본과 캐나다 및 호주 간의 문화차가 확인된 다른 척도(高田, 大本, 清家, 1996)를 사용하여 상호독립적 상호협조적 자기관에 관해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한 연구(이누미야 등, 1999)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은 상호독립적 자기관보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나 Markus와 Kitayama(1991a)의 이론이 가정하는 대로 한국을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로 분류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른 연구(조선영, 이누미야, 김재신, 최일호, 2005)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대학생의 경우는 일관되게 상호독립적 자기관보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누미야 등, 1999; 조선영 등, 2005). 따라서 일본을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어느 쪽에도 쉽게 분류할 수 없는 자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Matsumoto(1999)는 Markus와 Kitayama(1991a)의 문화적 자기관 이론은 독립변수(예를 들어 일본과 미국)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낼 뿐, 그 사이에 Markus와 Kitayama(1991a)가 주장하는 문화적 자기관의 개재를 확인하는 증거는 없으며 문화적 자기관을 문화차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제기했었는데, Levine 등(2003)의 연구는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틀로서 ‘개인주의-집단주의’ 도식은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연구들을 촉진시킨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개인주의-집단주의’ 도식은 문화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포괄적 개념으로 단순하게 처리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개인주의-집단주의’ 도식이 만연하게 됨에 따라 모든 현상을 도식적으로 처리하려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폐단으로 '개인주의 집단주의' 도식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무시되거나 왜곡되는 경향을 들 수 있다(한성열, 2003). 자기인식의 많은 측면에서 한국인이 나타내 보이는 긍정적 환상에 대해 지금까지 포괄적인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을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 또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긍정적 환상에 관한 한국과 일본 간의 확연한 문화차를 설명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이누미야(2004)가 제시한 주체성 대상성 자기 이론에 의거하여 한국인과 일본인의 긍정적 환상에 관한 문화차 설명을 시도하였다.

#### 이론적 대안제시

이누미야(2004)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다양한 심리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기관 모델로서 주체성-대상성 자기 이론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사회적 맥락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도 대인관계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의 방향성이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는 경우와 스스로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보는 경우이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양쪽 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표상이 자기개념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회적 관계에 임하는 태도에는 대조적인 차이가 있으며 한국인의 자기관은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는 주체성 자기(subjective self), 일본인의 자기관은 스스로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 존재로 보는 대상성 자기(objective self)라고 주장했다.

주체성 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향성을 중시하며, 내부기원의 준거틀(이상적 자기)에 초점을 맞춘 자기인식을 하고, 관계성 욕구 중에서도 “가르치고 싶다”, “주관하고 싶다”, “선도하고 싶다”, “주도하고 싶다”, “지배하고 싶다”와 같은 측면이 강하고 자기현시적인 자기외부를 향한 통제성을 주로 발휘한다. 한편 대상성 자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의 지향성을 존중하며, 외부기원의 준거틀(의무적 자기)에 초점을 맞춘 자기인식을 하고, 관계성 욕구 중에서도 “배우고 싶다”, “모시고 싶다”, “따라

가고 싶다”, “보좌하고 싶다”, “의존하고 싶다”와 같은 측면이 강하고 자기억제인 자기내부를 향한 통제성을 주로 발휘한다(이누미야, 2004).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주체로서의 자각(주체성 자기)에서 파생하는 심리적 활동성(또는 경향성)을 주체성 어떤 주체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자각(대상성 자기)에서 파생하는 심리적 활동성(또는 경향성)을 대상성으로 정의하였다. 모든 사람은 상황과 인간관계적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체성과 대상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그 비중에는 개인차 및 문화차가 존재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특징적인 민족적 정서의 측면에서 한국인의 주체성 우위와 일본인의 대상성 우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情)’이 중요시되는 반면(이규태, 1977; 최상진, 2000; 한규석, 2002) 일본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아마에(甘え)’가 중요시되어 왔다(土居, 1971). 정은 기본적으로 주체가 대상에게 느끼는 정서이며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마에는 수동적 애정회귀이고 모친에 대한 자녀의 의존이 그 핵심이 되는 정서적 의존성인데 일본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가정의 안과 밖에서 모친에 대한 의존과 유사한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한다. 물론 한국인도 ‘아마에(甘え)’적인 특징(응석, 어리광)을 충분히 구비하고는 있고(李御寧, 1982), 일본인도 ‘정(情)’에 해당되는 특장(人情, 오모이아리, 思いやり)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정(情)’을 제쳐놓고 응석이나 어리광이 가장 중요한 한국인의 특징이라고는 하지 않고, 반대로 일본에서는 아마에(甘え)를 무시하고 人情(人情)나 오모이아리(思いやり)가 제일 중요한 일본인의 심성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정(情)’도 일본인의 ‘아마에(甘え)’도 그 발달적 기원을 밀접한 부모자식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土居, 1971; 최상진, 2000). 그런데 서로에게 강한 애착이 형성되고 공감적이고 친밀한 자타미분화적인 관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주체로서의 부모가 느끼는 ‘정(情)’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모친에 의존하는 대상으로서의 자녀가 느끼는 아마에(甘え)에 중점을 둔 개념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아마에(甘え)’의 기본적 특징을 요약하면 수동적 대상에(受動的對象愛)라고 할 수 있는데(土居, 1971), ‘정(情)’의 기본적

특징을 그와 대비하여 요약해 본다면 능동적 주체애(能動的 主體愛)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누미야, 2004).

한국인이 주체성 자기가 우세한 민족이고, 그와 대비하여 일본인이 대상성 자기가 우세한 민족이라는 것은 언어의 특징, 즉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에도 드러나고 있다. 어순과 어휘가 상당히 유사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어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동태와 사역수동태를 한국어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어에서는 일부 동사에 수동태가 있기는 있으나 대부분의 동사는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변하지 않는데, 일본어에서는 대부분의 동사가 수동태로 변할 수 있다(吳善花, 1992).<sup>1)</sup> 또한 타인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사역수동도 자주 사용한다.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의 요구에 의하여(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다(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사역수동은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방식이다(전수성, 1992).<sup>2)</sup> 또한 일본 사람은 ‘~을 하도록 하여 주심을 받는다(させていただく)’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한국인이려면 능동태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일본인은 ‘하도록 하여 주심을 받겠습니다(やらせていただきます)’라고 보통 표현한다. 실제로는 그 일을 직접 시키는 사람이 없을 때도 어떤 주체를 상징하여 그가 시킨 그 일을 자기가 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렇게 표현한다. 즉, 한국어에서는 주체로서의 자기에 초점이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대상으로서의 자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는 대상성이라는 심성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동태나 사역수동의 표현이 발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은 일본어를 학습할 때 일본어의 수동태나 사역수동의 뉘앙스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것 역시 한국인이 주체성에 비해 대상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누미야, 2004).

어떤 민족의 정신적 특성과 그 언어의 형성은 서로 밀접한 융합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언어는 말하자면 그 민족의 정신이 밖으로 나타난 현상이다(芝垣, 2000). 언어문화의 심층에 존재하는 통일된 하나의 틀로서의 ‘내적언어형식’은 말하는 사람이 말을 표출할 때 그에게 일정한 지시(문화적 코드)를 주고, 그 표출된 말을 이해할 때 듣는 사람도 그 일정한 지시에 따라 그 말을 이해하게 되면서 한 언어를 공유하는 민족을 무의식적으로 그 문화적 코드에 순응하여 반응하게 만든다(芝垣, 2000). 일본어 표현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 수동태와 사역수동태는 일본인의 대상성 자기를 지탱하고 있으며 수동태와 사역수동태의 상대적 기피(또는 결여)는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의 자기관이 자신을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 보는 주체성 자기(subjective self)로 본다면 조선영 등(2005)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상호독립적 자기관 척도 점수가 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 점수 만큼 높게 나타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높은 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 점수는 높은 관계성을 반영한 것인데, 높은 상호독립적 자기관 척도 점수가 의미하는 자립성은 주체성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타자와의 관계성은 유지하면서 타자에 의존하거나 타자로부터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야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일본 대학생들이 관계성(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 점수)은 높지만 자립성(상호독립적 자기관 척도 점수)이 낮은 것은 대상성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독립적 자기관 척도에 포함되어 있는 ‘나는 나의 의견을 언제나 확실히 말한다’, ‘나는 언제나 자신을 가지고 말하며 행동하고 있다’와 같은 문항들에 나타나고 있는 자기주장성은 독립적 존재로서의 자기가 갖는 특징일 수도 있으나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자기가 갖는 특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생들의 높은 상호독립적 자기관 척도 점수는 주체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예를 들면 한국어로 ‘그 편지가 누이동생에게 읽혀졌다(その手紙を妹に讀まれた)’; 누이동생이 그 편지를 읽었다는 뜻’라고 하면 어색한 표현이지만, 일본어로 그러한 내용을 수동태로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또한 일본어에서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도 수동태가 될 수 있다. ‘사원들이 조퇴해 버렸다(社員たちが早退してしまった)’뿐만 아니라 ‘사원들의 조퇴를 당해버렸다(社員たちに早退されてしまった)’라는 표현도 자주 쓰인다. 또한 ‘A의 아들이 죽었다(Aの息子が死んだ)’라는 표현도 물론 쓰지만, ‘A는 아들의 죽음을 당했다(Aは息子の死なれた)’라는 표현이 훨씬 더 흔히 쓰이는 표현이다.

2) 일본어의 ‘させられる’은 한국어로 직역하면 ‘시킴을 당하다’라는 뜻이다. ‘교수가 읽으라고 해서 이 어려운 책을 읽고 있다’라는 내용을 일본어에서는 흔히 ‘교수의 시킴을 당하여 이 어려운 책을 읽게 된 상태에 있다(讀まされている)’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 주체성 자기와 긍정적 환상

한국처럼 주체성 자기가 우세한 문화에 있어서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적 존재로서의 자격을 자신에게는 물론 타자에게도 확인시키기 위해, 자기 안에 자랑할 만한 속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 유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주체성 자기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서 그러한 바람직한 속성을 발견하여 그것들을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도록 동기화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과 같은 주체성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 수준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발달시켰을 것이다. 특히, 자신의 바람직한 속성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다. 즉, 특히 그러한 정보에 주의의 초점을 맞춰, 그것들에 대해 애착을 보이고 자주 생각하는 심리적 습관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인이 자기특성, 통제감, 장래에 대해 강한 긍정적 환상을 갖는 것은 자신을 독립적 존재로 보기 때문(北山, 1998)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적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적 초점화의 결과로서 귀인적 추론에 있어서 자기고양 편파가 초래된다고 생각된다. 즉, 자신에게 자기가 기대했던 바람직한 사건(예를 들어 성공)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바람직한 내부속성(예를 들어 높은 능력)을 직접 추측하는데 반해, 자신에게 자기가 기대 안했던 바람직하지 않은 일(예를 들어 실패)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것과 모순되는 자신의 바람직한 속성(예를 들어 높은 능력)을 유지하려고 하여, 그 모순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적 요인을 추측하여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성공했을 때의 자기고양적 귀인은 주체성 자기를 확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패했을 때의 자기방어적 귀인은 주체성 자기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주체성 자기를 확증해주는 성공에 대한 기억은 실패에 대한 기억보다 잘 보지될 것이고 이러한 자기고양적 해석과 선택적 기억은 다시 자기특성과 통제감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또한 장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인의 성공과 실패의 귀인에 대한 김혜숙(1995)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은 개인과제 수행상황에서 실패에 대한 능력 귀인보다 성공에 대한 능력 귀인이 더 강한 자

기고양적 귀인을 나타내 보였는데, 익명의 귀인 상황에서 보다 자신과 같은 과제를 수행한 타인들이 듣는 공개적 상황에서 더욱 자기를 긍정적으로(자기고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주체성이라는 개념이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체성 자기의 고양욕구는 순수하게 개인적 상황에서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익명의 경우에는 자기고양적 과제평가를 보이지 않았으나, 공개적 평가 상황에서는 가장 뚜렷한 자기고양적 평가(즉, 성공했을 때는 과제를 보다 정확한 것으로 평가하고, 실패했을 때는 보다 덜 정확하다고 평가함)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사적으로는 자기를 높이는 방식으로 귀인하지 않는데 남이 있는 상황에서는 보다 뚜렷이 자기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제시하려는 경향은, 남의 존재 하에서는 자신감의 결여를 은폐하고 과시 포장하려는 “허세”라는 방어기제(박영숙, 1990)로 보인다(김혜숙, 1995). 이는 익명성이 보장된 경우에서도 나타나는 자기비판적 경향이 공개적인 상황에서 특히 강해지는 일 본인의 겸양적 자기제시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허세”라는 기제로 방어하려는 대상은 물론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이다.

### 대상성 자기와 자기비판

한편 일본은 대상성 자기가 우세한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그 일부로 간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적 인간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정체성 유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안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서 끼워 넣어 가도록 동기화되어 있을 것이다.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 내부 속성의 평가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일은 대상성 자기를 가진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따라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별로 동기화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 기대, 명백한 규범, 또는 가치관 등을 간파하여, 그러한 외부기원의 준거를 내면화한 의무적 자기와 비교하여 자신의 결점, 즉 자신이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르는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을 수정하여 이 관계 안에 자신

을 끼워 넣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sup>3)</sup> 만약 그렇다면 일본과 같은 대상성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다. 즉, 특히 그러한 정보에 주의의 초점을 맞춰, 그것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심리적 습관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다. 일본인이 긍정적 환상이 거의 없거나 자기비판적 지각을 하는 것은 자신을 상호협조적 존재로 보기 때문(北山, 1998)이라기보다 사회적 관계에서 영향력을 수용하는 대상성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적 초점화의 결과로서 귀인적 추론에 있어서 자기비판 편파가 초래된다고 생각된다. 즉, 자신에게 자기가 예상했던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예를 들어 실패)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거기서 일관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내부속성(예를 들어 낮은 능력)을 직접 추측하는 데 반해, 자신에게 자기가 예상 안했던 바람직한 일(예를 들어 성공)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것과 모순되는 바람직한 속성(예를 들어 낮은 능력)이 추측되어, 그 모순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적 요인을 추측하여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성공했을 때의 겸양적 귀인은 대상성 자기를 확인하는 효과가 있으며 실패했을 때의 자기비판적 귀인은 대상성 자기의 향상(또는 개선)을 지향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대상성 자기를 확증해주는 실패에 대한 기억은 성공에 대한 기억보다 잘 보지될 것이고 이러한 자기비판적 해석과 선택적 기억은 다시 자기특성과 통제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또한 장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질 것이다.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기에 관한 긍정적 환상의 기능과 기제

에 대해 정리한 후, 긍정적 환상의 문화차에 대한 기존의 해석틀인 개인주의-집단주의 또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기특성의 지각, 장래에 대한 전망, 통제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 등에서 드러난 한국인과 일본인의 확연한 차이를 조명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대안적 이론인 주체성-대상성 자기 이론에 의한 자기인식의 문화차 해석을 시도해왔다. 마지막으로 자기에 관한 긍정적 환상을 해석하는 주체성-대상성 자기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후속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이론이 받은 비판을 주체성-대상성 자기 이론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즉, Markus와 Kitayama(1991a)의 문화적 자기관 이론에 대해 Matsumoto(1999)가 지적하고 Levine 등(2003)의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주체성-대상성 자기 이론의 기본적 가정도 검증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은 주체성 자기가 대상성 자기보다 강하고 일본인은 주체성 자기보다 대상성 자기가 강한지, 그리고 한국인의 주체성 자기는 일본인의 주체성 자기보다 강하고 일본인의 대상성 자기는 한국인의 대상성 자기보다 강한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에서 실제로 주체성-대상성 자기와 자기에 관한 긍정적 환상이 관련이 있는지가 검증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주체성-대상성 자기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신적 건강 및 현실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긍정적 환상은 자기에 관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 환상은 자기고양뿐만 아니라 관계고양(또는 타자고양)과 집단고양으로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이론화되어 있지 않지만(堀毛, 2006), 주체성-대상성 자기에 따라 정신적 건강과 긍정적 환상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관계고양(또는 타자고양)과 집단고양까지 시야에 포함시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주체성 자기가 강한 한국인의 정신적 건강 및 현실적응은 자기에 관한 긍정적 환상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능하지만 대상성 자기가 강한 일본인의 정신적 건강 및 현실적응은 자기에 관한 긍정적 환상으로는 거의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연구에서는 일본인의 자기비하적 제시는 타자가 그것을 호의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문화

3)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인처럼 주체성 자기가 강한 사람의 경우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기 위해 자신의 결점을 개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주체성 자기의 소유자는 타자의 지향성보다 자신의 지향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개조하기보다는 상대나 관계자체를 재설정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주체성 자기를 가진 사람들이 중시하는 관계는 공적 인간관계라기보다 사적 인간관계이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상의 인간관계도 의사적(擬似的) 가족주의나 연고주의의 영향 때문에 다분히 사적 인간관계화된 관계를 맺고 있다. 사적 인간관계에서는 공적 인간관계에서보다 자기개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약할 것이다.

적 각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타자가 자기비하적 제시를 부정해주는 것을 통해 정신적 건강이 촉진된다는 것을 밝혔지만(吉田 浦 2003) 정신적 건강을 촉진하는 좀 더 적극적인 통로로서 관계고양과 집단고양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셋째, 본 논문에서는 한국문화의 성격을 파악하는 차원으로서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집단주의라는 실체론적 개념보다는 관계주의라는 현상학적 개념이 오히려 더 적절하게 한국 사회의 특징을 요약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동직, 한성열, 1998; 한규석, 2002). 한국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인 관계망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주의 문화이며 가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연고주의는 역할적 관계를 정(情)의 관계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공적이고 직업적인 역할관계를 중요시하며 사적이고 심정적인 인간관계로부터의 침범을 경계한다는 주장이 있다(이누미야, 2004). 주체성-대상성 자기와 사적이고 심정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관계주의성향 및 공적이고 직업적인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집단주의성향의 관계도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 참 고 문 헌

- 김동직, 한성열 (1998). 개별성 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2(1), 71-93.
- 김혜숙 (1995). 귀인상황의 공개성과 집단/자아존중이 자기고양 귀인과 집단고양 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9(1), 45-63.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4(1), 75-93.
- 박영숙 (1990). 자아방어 진단검사 표준화 예비연구. 이화 의대지, 13(3), 233-242.
- 이규태 (1977).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 문리사.
-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4). 한일 비교 성격론. 인본연구, 11, 101-124.
-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 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 연구 :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1), 183-201.
- 이훈구 (1980). 내외통제성 : 한국 초·중·고등학교생의 내외통제 경향성, 학생생활연구, 제5집(충북대학), 41-51.
- 임희섭 (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 나남.
- 정 옥, 한규석 (2005). 자기고양 현상에 대한 조절변인으로서는 자존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1), 199-216.
- 조금호 (2002).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1), 91-111.
- 조금호, 명정완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재신, 최일호 (2005).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공적자기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4), 49-60.
-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木村裕 (2005). 한일 대학생의 대인불안 규정요인의 비교 : 공적자기의식, 자아존중감, 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1), 1-12.
- 차재호, 정지원 (199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1), 150-163.
- 최상진 (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 중앙대학교출판부.
- 최태진 (200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신건강 : 부모애착과 수평적 · 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상호관계와 그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117-152.
- 최태진 (2006). 청소년의 문화성향에 따른 교우관 갈등해결 전략. 한국청소년연구, 17(1), 5-31.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 :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성열 (2003). 자기고양 편파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 대

- 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79-99.
- 李御寧 (1982). 「縮み」志向の日本人. 東京: 學生社.
- 伊藤忠弘(이토 타다히로) (1999). 社會的比較における自己高揚傾向: 平均以上効果の検討. 心理學研究, 70(5), 367-374.
- 遠藤由美(엔도 유미) (1995). 精神的健康の指標としての自己をめぐる議論. 社會心理學研究, 11(2), 134-144.
- 吳善花 (1992). 新スカートの風: 日韓あわせ鏡の世界. 東京: 三交社.
- 鎌原雅彦(감바라 마사히코), 樋口一辰(히구치 가즈토카) (1987). Locus of Controlの年齢的變化に關する研究. 教育心理學研究, 35(2), 177-183.
- 北山 忍(기타야마 시노부) (1995). 文化的自己觀と心理的プロセス. 社會心理學研究, 10, 153-167.
- 北山 忍(기타야마 시노부) (1998). 自己と感情: 文化心理學による問ひかけ. 共立出版株式會社.
- 北山 忍(기타야마 시노부), 唐澤眞弓(가라사와 마유미) (1995). 自己: 文化心理學的視座. 實驗社會心理學研究, 35, 133-163.
- 芝垣哲夫(시바카기 테츠오) (2000). 日本人の深層文化: 相對的比較論. 東京: 旺史社.
- 高田利武(다카타 토시타케) (2004). 「日本人らしさ」の發達社會心理學.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 高田利武(다카타 토시타케), 大本美千恵(오오모토 미치에), 清家美紀(세이케 미키) (1996). 相互獨立的の相互協調的自己觀尺度 (改訂版) の作成. 奈良大學紀要, 24, 157-173.
- 高野陽太郎(타카노 요우타로우), 櫻坂英子(오사카 에이코) (1997). “日本人の集團主義とアメリカ人の個人主義”: 通説の再検討. 心理學研究, 68(4), 312-327.
- 土居健郎(도이 타케오) (1971). 甘えの構造. 東京: 弘文堂.
- 外山美樹(トヤマ ミキ), 櫻井茂男(사쿠라이 시게오) (2001). 日本人のポジティブ・イリュージョン現象. 心理學研究, 72(4), 329-335.
- 堀毛一也(호라케 카즈야) (2006). 自己認識と關係性のポジティブティ. 島井哲志(編) ポジティブ心理學.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 吉田綾乃(요시다 아야노), 浦光博(우라 미츠히로) (2003). 自己卑下の呈示を通じた直接的・間接的な適應促進効果の検討. 實驗社會心理學研究, 42(2), 120-130.
- Baumeister, R. F. (1991). *Meanings of life*. Guilford Press.
- Greenwald, A. G. (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8.
- Greenwald, A. G.,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R. S. Wyer & T. K. Srull(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pp.129-178). Hillsdale, NJ: Erlbaum.
- Gudykunst, W. B., Matsumoto, Y., Ting-Toomey, S., Nishida, T., Kim, K., & Heyman, S. (1996). The influence of cultural individualism-collectivism, self construals, and individual values on communication styles across culture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2, 510-543.
- Leung, T., & Kim, M. S. (1997). A revised self construal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Heine, S. J., Kitayama, S., Lehman, D. R., Takata, T., Ide, E., Leung, C., & Matsumoto, H. (2001). Divergent consequences of success and failure in Japan and North America. An investigation of self-improving motivations and malleable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599-615.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eine, S. J., & Lehman, D. R. (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2(6), 1268-1283.
- Lackman, M. E. (1986). Locus of control in aging research: a case for multidimensional and domain-specific assess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Aging*, 1, 34-40.
- Lao, R. C. (1976). Is internal-external control an age-related variable? *Journal of Psychology*, 92, 3-7.

- Levine, T. R., Bresnahan, M. J., Park, H. S., Lapinski, M. K., Wittenbaum, G. M., Shearman, S. M., Lee, S. Y., Chung, D., & Ohashi, R. (2003). Self-Construct Scales Lack Valid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2), 210-252.
- Matsumoto, D. (1999). Culture and self :An empirical assessment of Markus and Kitayama's theory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 289-310.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2nd edition). Pacific Grove, CA : Brooks Cole Publishing Co.
- Matsumoto, D., Kudoh, T., & Takeuchi S. (1996). Changing Patter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ulture Psychology*, 2 , 77-107.
- Markus, H., & Kitayama, S. (1991a). Culture and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 Kitayama, S. (1991b). Cultural variation in the self-concept. In J. Strauss & G. R. Goethals (Eds.), *The self :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New York : Springer-Verlag.
- Milgram, N. A. (1971). Locus of control in negro and white children at four age level. *Psychological Reports*, 29, 459-465.
- Nisbett, R., & Ross, L. (1980). Human Inference-Strategies and Shortcomings of Social Judgment.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Oyserman, D., Coon, H. M., & Ke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 3-72.
- Penk, W. (1969). Age changes and correlates of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Psychological Reports*, 25, 856.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Whole No.609), 1-28.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 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 580-591.
- Taylor, S, E., & Brown, J. D.(1988). Illusion and well-being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 Brown, J. D. (1994). "Illusion" of mental health does not explain positive illusions. *American Psychologist*, 49, 972-973.
- Taylor, S, E., Kemeny, M. E., Aspinwall, L. G., Schneider, S. G., Rodriguez, R., & Herbert, M. (1992). Optimism, coping, psychological distress, and high-risk sexual behavior among men at risk for AI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60-473.
- Weiner, B. (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emotion and motivation*. New York : Springer-Verlag.
- Weinstein, N. D. (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06-820.
- Weinstein, N. D. (1984). Why it won't happen to me : Perceptions of risk factors and susceptibility. *Health Psychology*, 3, 431-457.
- Weinstein, N. D. (1987). Unrealistic Optimism about susceptibility to health problems : Conclusions from a community-wide sampl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0, 481-500.

## **A Comparison of Positive Illusions Between South Korean and Japanese : Explanation by Subjective Self and Objective Self**

**Yoshiyuki Inumiya**

Seojeong College

**Yun Joo Kim**

Seoul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an alternative model of cultural self-construals which can explain the difference in self perception between South Koreans and Japanese. Traditionally accurate perception of self has been essential for achieving mental health. But some researchers argue that positive illusions(or self-enhancing biases) are characteristic of general human thinking. Self-enhancement is one of the most reliable findings in Western cultures. However, many cross-cultural studies have found little or no such self-enhancing biases in Japan. Therefore, it has been argued that the cultural difference in self perception reflects cross-culturally divergent view of self as independent(in European American cultures) or as interdependent (in Asian cultures). But this perspective cannot explain positive illusions that South Koreans hav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d an alternative model of cultural self-construals; subjective self of South Koreans and objective self of Japanese.

**Key words : self-construal, subjective self, objective self, positive illusions, self-enhancing biases**

원고접수 : 2006년 9월 15일

심사통과 : 2006년 10월 19일